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공부하는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 구원, 그 이후 성장

성장 과정 중에 해야 할 일: 섬김(막10:42-45)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섬겨야 한다. minister, ministry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성경과 교리를 강조하는 근본주의 교회들, 교회가 커 가는데 리더들의 섬김이 부족하다.

그래서 섬김이 무엇인지 가르칠 필요가 생김

사역=섬김 즉 종이 되는 것,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위어스비 목사님의 두 책: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On Being a Servant of God)>, <건강한 사역자입니까?(10 Power Principles for Christian Service)>

1.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개관

워렌 W. 위어스비(Warren. W. Wiersbe) 著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원래 초판 1993, 개정판 2007)은 ‘목사의 목사’라는 명성을 얻고 있는 워렌 W. 위어스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들려주는 자상한 조언을 담고 있다.

워렌 위어스비(Warren Wiersbe, 1929년 5월 16일), 25세, 1953년 북부 침례교 신학교(Nor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71-1978년까지 시카고 무디 교회 목사, ‘목사의 목사’(pastor’s pastor), 여러 사역, 100여 권

1950년 크리스천 사역을 시작한(안수는 1951년) 이후로 어언 60여 년간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의 다양한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강연과 글을 통해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깊이 깨달은 그는 달았다.

이 깨달음은 경험했던 다양한 사례들과 더불어 명약과 같은 지혜로 30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어 서술되고 있다.

1. 사역의 추억, 2. 사역자는 누구인가?, 3.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
4.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사역, 5.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 6. 부르심에 신실한 사역
7.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사역, 8.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역, 9. 인격을 통한 사역
10. 성숙함의 사역, 11. 포용하는 사역, 12. 웃음과 사역
13. 다리를 놓는 사역, 14. 전환기의 사역, 15. 이동기의 사역
16. 실패와 함께하는 사역, 17. 나이든 세대와 사역, 18. 젊은 세대와 사역
19. 독서와 사역, 20. 가정과 사역, 21. 기쁨의 사역
22. 성경과 사역, 23. 복음과 사역, 24. 신실한 사역
25. 고통과 영광의 사역, 26. 심판대와 사역, 27. 내키지 않는 날의 사역
28. 용서와 사역, 29. 돈과 사역, 30. 미래와 사역

이 30가지 주제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보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결단코 완전히 불행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기쁨의 사람도 더 이상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해 줄 정도로 하나님의 일꾼의 현실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며 격려해 준다.

뿐만 아니라 친절한다 실력도 출중한 명의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의 사역에 있어서 병적인 요소들을 정확히 짚어주고 효과적인 처방을 해준다.

그는 기독교 사역이란 “대형 교회나 가장 큰 교회학교, 최고 실력의 성가대 또는 효율적인 새 신자 부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빛는 것이며 이것이 기독교 사역의 전부라고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헛된 야망과 신화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겸손히 진실하게 따를 것을 격려하며 그 방향을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위어스비 목사님은 “사역이 수월했던 시기는 단 한 순간도 없었지만, 편리한 전자기기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사역은 많이 힘들며, 그 이유는 사람들과 교회가 이전과 달라졌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고, 원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속이며 파괴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지만, 그 방법 이면의 원리들을 먼저 이해하지도 않은 채 단지 다른 사람들이 효과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나침반도 배의 키도 모두 버리는 것이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한다.

위어스비 목사님은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을 토대로 ‘사역’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사역은 사랑이 흐르는 통로가 돼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부르심에 신실해야 하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한다.

“사역은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우리는 믿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종류의 필요를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위어스비 목사님은 풍부한 목회경험을 토대로 ‘포용하는 사역, 실패와 함께하는 사역, 다리를 놓는 사역, 인격을 통한 사역’ 등 다양한 사역의 방법이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심지어는 ‘내키지 않는 날의 사역’도 있다.

“우리 모두는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날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가장 잘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겪는 ‘기분 내키지 않는 날들’말입니다. 다행히도, 기쁨을 주는 사역은 감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종에 바탕을 둡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정의 호불호에 근거해 동기가 부여되는 사역은 신뢰할 수 없고 이기적이며, 배려 없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같이 고난을 함께 견디어내야만 합니다.”라고 ‘내키지 않는 날의 사역’에 대해 설명한다.

책을 읽는 가운데, 내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내용은 위어스비 목사님의 사역에 대한 정의이다.

“사역(Ministry)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사역에 대한 이 정의는 평생 붙들어야 할 원리이다. 또한 저자는 인격의 중요성을 나무의 뿌리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나무의 그림자는 명성이며, 나무의 열매는 성품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의 뿌리인 인격이라는 것이다. 인격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됨됨이인데, 이러한 인격이 사역의 뿌리라는 말에 매우 공감이 간다.

그리고 저자는 웃음이 사역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설명하면서 GEM에 지원한 선교사 후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했다. “나는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을 선교 현장에 보내지 않습니다. 선교사 후보자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으며,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지녔는지 상관없이, 유머감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선교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웃음과 유머감각은 앞으로 내가 계발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평소에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 유쾌하게 대화하는 법을 훈련 중이다.

2. 사역의 정의

전임 사역자, 자원 봉사자들 섬기는 사람들

여기서 저자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사역의 정의를 내린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굉장한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한다면

1. 행글라이더를 타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희열
2. 시지푸스(시시포스)가 못된 짓에 대한 형벌로 커다란 바위를 산꼭대기로 영원토록 굴러 올리는 부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방법대로 하면 끝까지 해 나갈 수 있다.

사역 초창기: 사역이 무엇인지 모르니 어려움

로마의 속담: “항해사가 자신이 어떤 항구로 가는지 모른다면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최고의 교육, 지식에도 불구하고 원리를 몰랐다.

바다 항해에는 나침반, 그런데 육상 지도,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헤매다가 드디어 원리 발견

“방법은 많다. 그러나 원리는 적다. 방법은 언제나 변한다. 그러나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원리의 이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성공 방법이 소용 없다: 배와 키 모두를 버리는 행위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방법들을 찾으려 하면 안 된다.

사역의 정의:

“사역(Ministry)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사도행전 3장 1-9절

1. 필요가 있는 사람 발견: 육체의 질병, 영적인 사망
2. 베드로와 요한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어 줌
3. 이 사람의 질병과 영적 사망 해결, 반드시 질병을 고쳐야만 하는 것은 아님
4. 하나님의 영광, 많은 사람들이 믿음

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눈을 떠야 합니다.

②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③ 하나님의 강력한 자원들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④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이 돌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온전히 돌려질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그리스도를 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한 사람에게 다가감으로써,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Ministry)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1. 하나님을 만났는가?
2. 그분의 자원들을 아는가?
3.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
4. 사랑으로 그들을 돕고 싶은가?
5.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가?

우리 교회: 주방, 옥상 주차관리, 방송실, 안내, 심방(상담), 교사, 찬양

갈6:1-10